

식약처, 시각·청각 장애인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확대 지원 현장소통

- 화장품 점자 표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공유 및 현장 지원 필요사항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는 지난 7월 2일 발표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고,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등 1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화장품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병행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식약처는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표시 사항과 세부 방법을 안내하는 ‘점자 및 QR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편의나 배려 차원이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다”라며, “식약처와 업계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어떤 소비자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소비자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3-719-3401)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043-719-3412)



□ 배 경

- 화장품 용기·포장의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화장품 QR코드) 표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 추진 및 지원 요청사항 의견수렴

□ 개 요

- (일시) '26. 7. 7.(화), 14:00 ~ 16:00
- (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충북 청주)
- (참석자) 김예지 국회의원, 바이오생약국장, 화장품 제조업체 등*
 - * 라이온코리아, 메디앙스, 브리브컴퍼니,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오케이, 엘지생활건강, 이닛컴퍼니, 한국콜마, 헨켈홈케어 등 10개사
- (내용) 1. 점자 등 표시 관련 업계 노하우 공유 및 의견수렴
2. 점자 및 QR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등 지원 계획 안내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고
14:00 ~ 14:10('10)	환담 및 참석자 소개	
14:10 ~ 14:20('10)	인사말씀	
14:20 ~ 14:40('20)	점자 및 QR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등 지원 계획 안내	
14:40 ~ 15:50('70)	점자 등 표시 관련 업계 노하우 공유 및 의견수렴	
15:50 ~ 15:55('5)	마무리 말씀	
15:55 ~ 16:00('5)	환송	

종이 포장



종이 포장



플라스틱 용기

